

조건부자본제도 확정에 따른 하이브리드채권 규제 강화

□ 주요국 금융 감독당국 및 중앙은행 총재들이 참석한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 회의가 2011년 1월 10일 스위스 바젤에서 개최되어 신종자본증권이나 후순위채 투자자도 보통주 전환이나 상각(write-off)을 통해 은행손실을 분담하도록 하는 조건부자본제도(contingent capital)를 최종 확정함

□ 이번 BCBS의 조건부자본제도 최종 확정은 은행들에게 손실보전에 관한 메커니즘을 하이브리드채권에 확실히 포함되도록 개선함으로서 은행들이 자본금 확충 또는 자본조달을 위해 발행하는 하이브리드채권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분석됨

□ 은행들은 2010년 8월 BCBS가 제안한 한층 강화된 새로운 은행규제안에 대해 자본비용 증대, 잠재적인 대출여력 축소 등을 이유로 크게 우려해 왔으며, 독자생존 불가능 의미의 명확성이 보장되지 않는 한 하이브리드채권 발행이 용이치 않을 것으로 지적함

□ **주요국 금융 감독당국 및 중앙은행 총재들이 참석한 바젤은행감독위원회(Basel Committee on Banking Supervision; 이하 BCBS) 회의가 2011년 1월 10일 스위스 바젤에서 개최되어 다음과 같은 사항의 내용에 대해 최종 확정함**

— 은행의 독자생존이 어려운 부실 상황에 직면한 경우 보통주 자본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뿐만 아니라, 하이브리드채권(hybrid bonds)과 같은 신종자본증권이나 후순위채 투자자도 보통주 전환이나 상각(write-off)을 통해 은행의 손실을 분담하도록 하는 조건부자본제도(contingent capital)를 최종 확정함

- 이번 회의에서 확정된 조건부자본제도는 2010년 12월 발표한 「바젤Ⅲ 기준서: 글로벌 자본 및 유동성 규제체계」[1]에 추가 반영되어 기본자본(Tier1) 및 보완자본(Tier2)의 인정 요건 중의 하나가 될 예정임

— 글로벌 금융 감독당국자들은 납세자들의 세금으로 구제금융 지원에 따른 비난을 제거할 목적으로 은행들이 BIS 자기자본 규제를 충족하기 위해 확보해야 하는 규제자본(regulatory capital) 형성을 위해 발행하는 채권에 한층 강화된 요건들을 부과함

— 이번 회의에서 바젤Ⅲ 기준이 마무리됨에 따라 각국 금융 감독당국자들은 향후 BCBS 차원에서 추가로 검토할 과제들을 점검하였으며, 조건부 자본제도의 시행 시기는 추후 BCBS에서 별도로 발표될 예정임

1) BCBS가 지난해인 2010년 12월 16일 발표한 「Basel Ⅲ: A global regulatory framework for more resilient banks and banking systems」 및 「Basel Ⅲ: International framework for liquidity risk measurement, standards and monitoring」



□ **이번 BCBS의 조건부자본제도 최종 확정은 은행들이 자본금 확충 또는 자본조달을 위해 발행하는 채권과 주식의 중간 성격을 가지며 예상치 못한 손실을 흡수하여 완충자본 역할을 수행하는 하이브리드채권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분석됨**

— BCBS는 하이브리드채권을 주식으로 전환하거나, 상각하도록 허용하고 있는 채권자손실분담(bail-in debt)으로 알려진 손실보전에 관한 메커니즘(mechanism)이 하이브리드채권에 확실히 포함되도록 개선함

- BCBS에 따르면, 2013년 이후 발행되는 하이브리드채권은 채권자손실부담이 자동적으로 부여되는 국가에서만 발행되거나 또는 하이브리드채권에 공식적인 조건(formal trigger)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 채권자분담제도는 납세자의 세금투입이나 은행의 독자생존 불가능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상각이 필요할 경우 주요 은행 감독당국자들의 결정으로 실행될 수가 있음

— 금융 감독당국의 자본요건 강화 방침으로 인해 현재 상당수 은행들은 규제자본 강화를 위해 다양한 형태의 부채나 우선주(preference shares)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임

- 이러한 하이브리드채권은 주식발행보다 조달비용이 낮은 편이나, 기존의 하이브리드채권은 세계 주요 금융 중심지를 포함한 BCBS의 동의를 거친 바젤III 은행개혁법에 따라 단계적으로 상환될 예정임
- 2011년 1월 초순에 Commerzbank가 10억 유로(13억 달러)의 부채를 액면금액의 60%로 주식 전환할 것을 제안하는 등 은행들은 자신들의 자본상태를 개선할 목적으로 하이브리드채권 상환을 이미 시작했음

— 다만, 글로벌 금융위기로 은행들이 막대한 손실을 입는 동안, 하이브리드채권 투자자들은 정부의 수천억 달러의 구제금융 지원 영향으로 별다른 타격을 받지 않은 것으로 전해짐

□ **은행들은 BCBS가 2010년 8월 제안한 한층 강화된 새로운 규제안에 대해 은행의 자본비용 증대, 잠재적인 대출여력 축소 등을 이유로 크게 우려해왔음**

— BCBS 회의결과 발표문에는 은행들이 금융 감독당국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새로운 증권 설계 착수를 희망하고 있으나, BCBS가 투자자와 은행들이 요구하는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회피한 것으로 전해짐

- 변호사들은 은행들의 독자생존 불가능 의미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에 대한 명확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새로운 하이브리드채권의 발행이 결코 용이치 않다고 언급함

— 이번 BCBS 발표는 은행들의 일시적인 손실흡수력 및 채권가치 증대를 희망하는 BCBS의 강경 입장이 다소 약화되기를 바라고 있는 일부 투자자들에게 좌절감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음

선임연구원 박태준